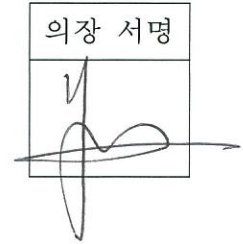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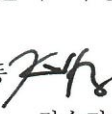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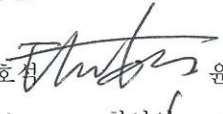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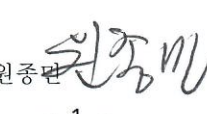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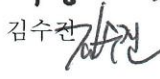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회

## 2019학년도 제3차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 10. 2(수) 15:00 ~ 17:3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10명) : 김해동, 채호석,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 학 교(1명) : 김중렬 총장
  - 불 참(1명) : 박연관
  - 회의지원(1명) : 엄중섭(기획팀)
4. 회의 안건
  - 대학평의회 의장 선출
  - 사이버한국외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 심의
  - 기타 논의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대학평의회 의장 선출 전까지 윤호숙 의원(교수협의회 회장)이 임시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함.
  - 엄중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윤호숙 임시의장이 2019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대학평의회 의장 선출

서명 : 김해동  채호석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 윤호숙 임시의장이 지난 제2차 회의 이후 경과를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의장 추천을 요청함.
- 김해동 의원 : 통상적으로 내부에서 의장직을 수행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 중에서 맡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원종민 의원 : 윤호숙 임시의장을 의장으로 추천함.
-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하여 윤호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함.
- 신입 의장 선출에 따라 윤호숙 의장이 회의를 주재함.

2) 사이버한국외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 심의

- 윤호숙 의장 : 지난 제2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회의록을 통해 2차 회의 내용을 확인하였음. 많은 의원분들께서 2차 회의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 오늘 제3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처장님께서 학교측 의원으로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진행하여 주셨는데 오늘 회의에는 총장님께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시어 설명과 함께 평의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총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함.
- 유정은 의원 : 총장님께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함.
- 채호석 의원 : 총장님께서 언제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언제 퇴장하시는지 질의함.
- 윤호숙 의장 : 회의 전에 확인해본 결과 직접 총장님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내부에서 논의를 더 하고 싶거나 혹은 총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것이 조심스러우신 의원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청드리면 총장님 퇴장 후에 내부 논의가 가능할것으로 보임. 직접 총장님께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유정은 의원 : 총장님이 배석하시면 자유롭게 발언하기가 힘들 것 같음.
- 윤이식 의원 : 학교측 의원으로 총장님이 참석하시든지 처장님이 참석하시든지 일단 설명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이 있는 경우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토론의 장에서는 퇴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 김해동 의원 : 총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안건의 중요도가 그 정도의 높은 사안이라면 총장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것도 좋을 것 같음.
- 김수진 의원 : 총장님께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전단계로 본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단계가 없었던 상황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임.

- 원종민 의원 : 금일 오전에 회의자료 및 제2차 회의록 열람을 통해 2차 회의 내용을 확인하였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유를 모르겠음. 제3차 회의자료를 보았을 때 상당히 구체성을 가진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왜 진행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부 구성원 대상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음.
- 김해동 의원 : 한국외대 대학평의원회의 경우를 보면 사안에 따라서 총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설명할 수도 있음.
- 윤호숙 의장 : 금일 오전에 총장님께서 이사장님을 뵙고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원분들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고 전달받았음.
- 윤호숙 의장 : 총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내부 전 구성원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신 후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오늘 안건에 대하여 교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 교수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의견을 대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임.
- 김해동 의원 : 대학평의원회 의원들이 총장님이 불편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 평의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면 듣는것도 맞다고 생각함.
- 윤이식 의원 : 현실적으로 내부에 불편한 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짐.
- 채호석 의원 :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각 추천단위별로 사전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함. 지난 제2차 회의 이후로 취득 계획(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진행이 안되는지 들은 바가 없는 상황임. 내부 구성원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평의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논의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임.
- 윤이식 의원 :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음.
- 원종민 의원 : 설명회 등을 통해 내부 구성원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음. 회의자료에 진행 절차와 설계도면을 보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윤호숙 의장 :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없었고 오늘 회의 일정도 지난주에 통보받고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었음. 어제 급하게 교수협의회 집행부와 급하게 논의를 한 상황으로 대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임. 오늘 회의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의 시간을 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할 계획이었음.
- 원종민 의원 : 직원들은 어떤 상황인지 질의함.
- 이범선 의원 : 직원들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공유가 안되어 있는 상황임.

- 윤호숙 의장 : 제2차 회의 이후에 회의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는 상황임. 총장님께 직접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유의견은 총장님께서 퇴장하신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대학평의원회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심의사항이나 그래도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상황으로 대학평의원회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윤호숙 의장이 총장님을 회의에 모시는것에 대하여 의원분들의 의견을 추가로 요청함.
- 김해동 의원 : 대학평의원회가 각 구성단위별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기구이고 평의원 한분 한분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분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던지 절차상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도 될 것 같음. 평의원회는 구성원 모두에게 오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른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크다고 알고 있음.
- 유정은 의원 : 지난번에 똑같은 절차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과가 나왔는데 이사회에서는 가결이 되었는지 궁금함.
- 김수진 의원 :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유정은 의원 : 부결이 됐는데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오늘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데 만약 다음주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을 때 향후에 똑같은 사안으로 또 다시 회의를 진행할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함.
- 김해동 의원 : 동일 사안이라도 반복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음. 지난번 부결이 된 상황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여짐.
- 채호석 의원 : 오늘 회의자료는 지난번 제2차 회의 자료에 내용 중 소요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설계도면 등이 추가된 상황임. 또한, 지난 회의에서는 활용계획이 추상적이었다면 오늘 회의자료에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여짐.

(김중렬 총장 입장 15: 30)

- 윤호숙 의장이 김중렬 총장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요청함.
- 김중렬 총장 : 지난 제2차 회의를 진행한 후 오늘 동일 사안으로 다시 회의를 요청한 건 10월 17일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 급하게 요청드렸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박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에 평의원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함.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수정 보완이 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린 후 Q&A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김종렬 총장 : 지난 제2차 회의에서도 부동산 취득 계획(안)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회의 안건과 크게 바뀐 부분은 없으나 당시 회의에서 우려의 말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으며 공감을 하고 있음. 우리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
- 김종렬 총장 : 회계 기준상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 대학은 현재 이월금으로 48억을 보유하고 있음. 대학 총 운영수익의 1.5%미만 수준의 이월금을 보유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권고 사항으로, 현재 우리 대학은 교육부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그간 이월금 관련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와중에 현재 취득 대상 부동산이 부각이 되었음. 법인 입장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홀도 신축한 상황에서 대학의 영역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법인에서는 우리 대학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김종렬 총장 : 비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건물 등 취득 대상에 무관하게 매입이 가능하지만,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채를 생각하게 되었음.
- 김종렬 총장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대학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 대학 공간이 한국외대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해당 물건 매입 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지난주에 법인에 대학에서 기채를 발생시키는 것은 대학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인과 대학 공동 비용 부담으로 1층~4층은 법인, 5층~8층은 대학이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김종렬 총장 : 법인 이사회가 10월 17일(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 신청 기한이 10월 25일(금)까지라서 일정이 촉박하여 불안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지난 8월부터 검토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주요 질의응답 및 심의의견>

- 채호석 의원 :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취득 사유가 상당히 부족했었으나 오늘 회의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은 해소가 되었음. 현재 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48억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한 것이 맞는지 궁금함.
- 김종렬 총장 : 교육부 권고사항에 맞춰 유보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었음. 우리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차세대 LMS 도입 등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이 많

- 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LMS 도입이 모바일 기술까지를 총 망라해서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유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중렬 총장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해야지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지난 회의 결과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섞인 의견들은 모두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 김중렬 총장 :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대학이 외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학생정원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책무성 부분에서 수익용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수익용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해줘야 함. 현재 우리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사항들은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임.
  - 김해동 의원 : 궁금한 사항이 3가지가 있음. 첫번째는 한국외대 스마트 도서관 증축 관련하여 사이버외대에서 재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과 이 안건과는 별건인지 궁금함. 두번째는 사이버한국외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이 유보금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인지 궁금함.
  - 김중렬 총장 :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마트 도서관과는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고 별건이라고도 할 수 있음. 학교를 운영하는 동원육영회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또한, 스마트 도서관 관련해서는 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상 돈을 주고 받을 수가 없어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임.
  - 김중렬 총장 : 두 번째는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김해동 의원 : 세 번째 질문은 법인 이사회에서는 임대수입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수익 창출 방안이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사안이 부결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부결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인지 궁금함.
  - 김중렬 총장 : 그 부분은 의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함. 다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실 경우 향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함.
  - 유정은 의원 :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려되는지 궁금함.
  - 김중렬 총장 : 학생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9학년도 입시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4명 줄었음. 감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2019학년도에 사회계열 2개 학과를 신설하면서 사회계열 입학정원을 29명 늘린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충원에 잘못하면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음.

다행히 재학생은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지난 학기와 비교해보면 등록금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음. 다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때 혹시라도 갑자기 충원에 몇 백명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경우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임. 현재 우리 학교 입학금 수입 8억 원에서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2022년에는 대학에 입학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게 됨. 이러한 상황들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운영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대학 위상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법인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임.

- 유정은 의원 : 그렇다면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손실을 메울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함.
- 윤이식 의원 : 오늘 회의전에 회의자료와 제2차 회의록 열람, 몇몇 사이버외대 내부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대학평의원회 회의 진행 전에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불식을 해소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오히려 추진에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 김중렬 총장 :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의 자리를 만들지 못한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 다만, 당시에 생각했던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채 60억 원은 우리 대학의 재정 규모에 비해 과도한 액수라 기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었으며, 은행 지점장들도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음. 오늘 회의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17일 이사회 전에 시간이 있으니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 유정은 의원 : LMS 교체 비용이 30억 원이 예상되고, 학교 홈페이지도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다는 소식을 학생들이 들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홈페이지와 관련된 학생들의 우려와 불만 사항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중렬 총장 :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당장 필요하다면 LMS에 30억 투자 가능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LMS 도입에 30억이 소요될지 60억이 소요될지 투자금액이 그 이상일지는 알 수가 없음. 기술적인 측면과 우리 학교의 실정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학교에 가장 적합한 LMS를 선택하여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음. LMS 뿐만 아니라 대학 홈페이지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무진에게 대학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요청한 상황임. 유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를 학교 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음.

- 김수진 의원 : 첫 번째로는 이월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장학금과 홍보비도 많이 줄인 상황임. 지금 현재는 흑자이긴 하지만 그간 비용 지출을 많이 줄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함. 건물을 지었을 때 대출 원금도 갚아야 하고 2%의 이자도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학교가 반드시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됨. 두번째로 건물의 사용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8층으로 신축하는 것이 걱정스러움. 세 번째는 진행절차에 10월 17일 이사회에 안건 상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천천히 논의해 가면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천천히 진행하자는 말씀은 좋으나 일정을 6개월 혹은 1년을 딜레이한다고 하면 법인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10월 2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용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을 연기하자고 법인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임. 법인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결사 반대하겠지만 우리 대학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법인에서 요청하는 일에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함.
- 윤호숙 의장 : 법인 및 이사장님의 의견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법인에서는 우리 대학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급하게 교수협의회 일부 교수님과 논의해본 결과 공통적인 의견은 이러한 무리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임.
- 김종렬 총장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한적은 있으나 무리수라고는 발언한적은 없음. 분명히 했으면 좋겠음.
- 윤호숙 의장 : 내부 교수님들께 의견을 물어보면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런 부분이 재단간의 온도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야 하는 총장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생계까지도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 윤호숙 의장 : 우리 대학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말도 조심스러운 것이 수익과 이월금이 몇 년 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축 운영을 통한 결과인 측면도 있음.
- 김종렬 총장 : 과거보다 돈을 적게 사용한것도 긴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만한 부분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더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윤호숙 의장 : 그것 또한 총장님과 내부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지금 논의중인 부동산 물건이 아닌 우리 대학 재정 규모에 알맞고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을 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대학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대학평의회가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학평의회의 의견과 우려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음.
- 김종렬 총장 :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마련하며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윤호숙 의장 :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보하고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시간이 더 확보된다고 해서 더 설득력 있는 논리나 확실한 대안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만약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 윤호숙 의장 :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평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 처음 들었음. 대학평의회 구성원이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총장님께서서는 부결이 될 줄 알았다, 개인적으로는 임대 수익을 받는 쪽이 나올 것 같은데 법원에서 하라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구성원들도 명확한 확신이 안서는 상황임. 차라리 총장님께서 책임을 질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구성원들을 앞에 두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불안한 부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공유하는 이유는 숨길 필요가 없으니 말씀드리는 것임. 구성원들이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려하면서 왜 계속 진행하냐고만 한다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함. 불안함이 있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견이고,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함. 근거 없는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기를 부탁함.
- 채호석 의원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일부건축과 전체 건축 2가지의 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 질의함.
- 김종렬 총장 : 법인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8층으로 신축하는 안, 두 번째는 대학에서 기채를 발생시킬 때 법원에서 그 비용을 담당하는 안도 있음.
- 최서연 의원 :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등기에 관하여 질의함.
- 김종렬 총장 : 법인과 등기를 따로 하는 계획이지만, 어차피 소유권자는 법인일 수밖에 없음.

- 채호석 의원 :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어떤 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함.
- 김종렬 총장 :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함. 변호사에게 문의해 본 결과 부분 등기하면 일부는 수익용 재산, 일부는 교육용 재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 채호석 의원 : 질문 드린 이유는 만약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임.
- 김종렬 총장 : 법인 이사회에 안건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찬반을 물어 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안은 아직 신중하게 검토중임.

(김종렬 총장 퇴장 16:40)

- 윤호숙 의장 : 교수협의회 집행부와의 면담 과정에서 명확하게 총장님이 어떤 부분이 법인의 입장이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의견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올라가도 부결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음.
- 유정은 의원 : 그래서 학생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당장 다음주 예정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임.
- 윤호숙 의장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 기능이 있으며, 그 구성원 중 교수진은 처장 3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보다 의견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미 한번 처장님들께 힘든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논의 내용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매우 조심스러움.
- 윤이식 의원 : 지난 제2차 회의록을 보면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 내용 중 첫 번째는 필요자금, 두 번째는 제안사유, 세 번째는 목적 등 모든 부분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졌음. 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 세가지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지 궁금함.
- 윤호숙 의장 : 첫 번째 필요자금, 두 번째 제안사유, 세 번째 목적 한 가지씩 다시 짚어 보기를 제안함.
- 김수진 의원 : 두 번째 제안사유는 해소가 안되었다고 생각함. 사유 내용이 지난번과 똑같고 왜 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함. 좀 더 시급한 일이 많을 수 있고 총장님 역시 본 계획안이 베스트 옵션이 아니라고 언급하셨음.
- 김해동 의원 : 베스트 옵션인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수진 의원 :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대학 여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없었음. 구성원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

더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의 자리가 있으면 좋겠음.

- 윤이식 의원 : 그 의견에 동의하며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부 구성원들의 전체 회의나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김해동 의원 : 좌고우면해야 되었을때에 법인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고민스러움.
- 김수진 의원 : 지난 여러 회의석상과 이사회 등에서 우리 대학이 뭔가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 학교발전에 필요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는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음. 사실 우리 교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결정을 한다면 대학의 발전, 한국외대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법인의 발전까지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 과정을 밟는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함. 내년 6월에 사학진흥재단 용자를 신청해도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 윤이식 의원 : 그렇다면 내년 6월로 딜레이가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함.
- 김수진 의원 : 내년으로 딜레이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 받은 바가 없는 상황임.
- 윤호숙 의장 : 총장님 의견은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고 해도 확실한 대안이 도출되기 힘들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반대로 내부 구성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싶은 상황임.
- 원종민 의원 : 제안사유에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교수연구실, 강의실 등 교육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공간 부족 문제가 10월에 반드시 신청하여 진행해야 하는 급박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원종민 의원 : 내부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외대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을 통해 우리 대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
- 김해동 의원 : 대학평의원회가 오랜 시간동안 듣고 논의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회의록에 남겨주길 요청드리며, 대학 운영에 관련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음.

(김해동 의원 퇴장 16:55)

- 채호석 의원 :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법인에서는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함. 설계 도면 앞장에 이문동 개발계획 도면을 첨부한 것은 지금 학교 앞이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대앞역 방향에서 남아있는 물건중에 향후 자산가치를 고려해서 해당 부동산 물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향후 학교앞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거주인원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자산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 채호석 의원 : 10월 17일(목) 법인 이사회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내부 구성원 대상 공청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짐.
- 윤이식 의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의견에 적극 찬성함.
- 윤호숙 의장 : 총장님께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설명회 자리를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음.
- 채호석 의원 : 공청회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함. 첫 번째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교수, 직원, 학생 각각 구성단위별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논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으로 진행하고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각 구성단위별로 추가 논의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만약 총장님께서 공청회 개최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교수는 교수협의회, 직원은 노조 혹은 팀장협의회, 학생은 학생회 집행부에서 각각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윤이식 의원 :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의견 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함.
- 김병철 의원 : 학교마다 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함. 다만, 해당 부지를 반드시 사야 하는지가 의문임. 사이버대학은 강의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최대 장점인데 왜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용도로 취득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유보금도 교육부에서 지적만하기 때문에 1~2년 정도의 시간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유보금을 해소할 방안은 가장 먼저 LMS 등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입시 홍보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타 사이버대학에 비해 우리 대학은 1/2 수준도 안되는 상황임. 그 다음 자금이 남는다면 우리 규모에 맞는 일반 건물을 취득해서 리모델링 한 후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함. 왜 부결된 동일 안건을 다시 논의해

- 야 하는지 모르겠음. 일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 최서연 의원 :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놓는 것이 교육부 지적사항으로 문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채는 상환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움.
  - 이범선 의원 : 앞서 여러 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받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음. 토지 매입을 통한 별관 신축 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대학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토지 매입과 교사 건축에 사용되는 기채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임. 찬성 또는 반대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지난 제2차 대학평의원회에서 필요자금, 제안사유, 목적 등 모든 부분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졌으며 추후 자료가 보완이 되고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한번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음. 이번 제3차 회의 논의 결과 여전히 필요자금, 제안사유, 목적 등 대부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졌음.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 안건은 대학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졌음.

## 7. 폐회선언

- 윤호숙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